

2013년, 다함께 일하는 해

◎ 조성표 (경북대 교수, 실행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총회에서 실행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성표입니다. 제가 실행위원장으로 나서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김승욱 교수께서 동역회의 아이콘으로 많은 시간과 열정을 들여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독교학문연구회와 통합 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실행위원장으로 수고하신 김승욱 교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길 기원합니다.

저를 보시며 불안을 느끼셨다면, 그분은 우리 동역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불안은 때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동역회가 걱정되니 내가 나서서 도와야겠다는 진정한 동역자의식이 발동된다면 동역회는 크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1990년 양승훈 교수님께서 공부하러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시면서 제가 당시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의 실행위원장에 해당하는 기획담당을 맡았습니다. 동역자 수련회가 진행 중이던 당시 포항공항에서 교수님을 배웅하고 돌아오면서 참으로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역자들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소극적이던 회원들이 학회, 출판사, 교육, 운동, 각 분야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각 분야에서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동역회를 크게 부흥시키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러한 헌신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으니 특히 서울 지역에서 많은 헌신자들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동역회를 본부 단위-연구 본부(학회와 연구소), 운동본부, 교육본부, 사무국 등-로 운영하여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각각의 본부가 본부장의 지휘 하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특히 CUP나 VIEW와 마찬가지로 월간지 월드부도 (주)세상바로보기를 설립하여 독자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실행위원장으로서는 각 본부와 위원회에 부탁드립니다. 올해 한 가지씩은 우리 동역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뚜렷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께도 변함없는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월간지에 글을 기고해 주시거나 총회나 집회에 참석해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의 슬로건은 「다함께 일하는 해」입니다. 작든지 크든지 회원 전체가 동역회의 사역에 동참하는 한 해이길 기대해 봅니다.



조성표 현재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이며, 본 동역회 실행위원장이자 대구 성덕교회 장로이다. 전공은 재무회계 및 연구개발회계로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련된 역서 및 저서로는 「돈 걱정 없는 가정」(CUP), 「하나님이 가르쳐준 행복한 가정생활」(이상규, 정동섭, 양은순 공저: CUP), 「하나님 돈을 어떻게 쓸까요?」(박정윤 공역: CUP), 「아직도 계속되는 꿈」(6인 공저: CUP), 「완전한 성공」(11인 공역: CUP), 「공학회계」(영경사), 「비영리단체/비정부기구의 전략경영과 자금개발」(예영커뮤니케이션), 「일수록 행복해지는 돈의 비밀」(CUP), 「FRS 중금회계」(경문사),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10인 공저: 예영커뮤니케이션) 등이 있다.

우리 동역회는 통합이후 3년 가까이 세계관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세계관이란 단어가 차 생소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교회나 그리스도인 모임에서 성경적 세계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서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역에도 새로운 전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 운동, 교육의 세 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도, 우리의 역량에 적합한 사역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동역회가 감당할 사역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초기에 이사로 헌신해 주신 김준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네들이 우리나라의 소망이야.” 우리들은 참으로 민망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서양은 배운 사람일수록, 젊은 사람일수록 교회를 떠나는데, 우리나라는 자네들과 같이 젊은 학자들이 하나님 일에 이렇게 열심이니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소망이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 의미를 잘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온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동역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역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주 안에서 동역자 된 조성표 드림